정읍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고부 · 영원면 지역주민 환승 불편 덜고 이동권 보장
지 · 간선제 12일부터 시범운행… 예산 절감 효과도

정읍시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나선다.

시는 고부면과 영원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 · 간선제를 도입, 12일부터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지 · 간선제는 정읍 시내에서 고부 · 영원면 소재지까지 잇는 간선도로에 간선버스를 운행하고, 간선도로 교차지역에 환승 승강장을 설치해 각 마을로 연결된 노선에 지선버스(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방식이다.

정읍시는 고부면과 영원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 · 간선제를 도입, 12일부터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기존 단일화된 시내버스 노선을 지선과 간선으로 나눠 환승 형태로 운행함으로써 버스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이동 거리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마을을 운행하는 버스의 노선 조정은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노선을 개선할 수 있다.

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노선이 최적화되면, 버스회사의 수익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형 마을버스(15인승) 운행으로 인한 차량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 · 간선제 시행에 따라 주민들의 환승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환승 승강장에 승하차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진단하고 시민들이 더 빠르고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의 요구에 맞는 시내버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 제316회 임시회가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주요 의사일정은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며 오는 19일과 21일 2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한다.

이어 오는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 답변과 함께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 처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음 회기인 제317회 제2차 정례회에 예정돼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해 의결할 예정이다.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은 "세상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도 바뀌고 있다"며 "이번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달라진 변화와 환경에 따라 군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부안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대안을 찾자"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단풍미인쇼핑몰 신규 입점 업체 모집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농·특산물 거점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단풍미인쇼핑몰에 신규 입점할 업체를 모집한다.

'단풍미인쇼핑몰'은 시 농업기술센터가 직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이다.

신청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정읍에서 생산·가공된 상품에 대한 합법적 통신판매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오는 30일까지 입점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063-539-6263)로 전화하거나, 단풍미인쇼핑몰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지역 내 희망업체를 추가 입점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장기임대)을 본격 추진한다.

정읍 농기센터,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본격 추진

농기계 구입 · 임대하는 형식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장기임대)을 본격 추진한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은 일손 부족 해결과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해 밭 농업 기계화율을 논 작물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밭작물인 양파와 고추, 마늘, 배추 등 주산지에 집단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 임대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 가격에 20%를 내구연한 동안 나누어 지불한다. 시는 2018~19년도 사업을 추진해 지역농협과 연구회, 작목반 등 6개소에 27종 36대의 파종 및 수확 농기계를 장기임대했다.

올해 사업은 영농조합법인 2개소에 8종 11대의 농기계 장기임대를 추진해 어려운 밭작물에 대해 기계화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장기임대는 농기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고 주변 농가의 농작업 대행까지도 겸할 수 있어서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밭작물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백산면, 2021년 13개 지구 463ha 경관단지 조성

경관보전직불사업 일환

부안군 백산면은 최근 경관단지 지구별 추진위원장 간담회를 갖고 2021년도 경관단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백산면은 2021년도에 13개 지구 463ha 규모로 경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는 올해 8개 지구에서 13개 지구로 크게 늘어났다.

이번 경관단지 조성은 경관보전직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경관작물 재배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벼를 수확 후 경관작물을 재배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경관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용성 백산면장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시행을 통해 농가의 소득향상과 농촌친화적 아름다움을 지닌 경관조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백산면은 최근 경관단지 지구별 추진위원장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고창군 사업발굴 · 예산 반영 발품

유기상 고창군수 기재부 · 행안부 등 방문, 협조 건의

유기상 고창군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하고 있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유기상 군수가 이날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안도걸 예산실장과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김위정 농림해양예산과장, 황순조 행정안전부 교부세 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국가예산 협조를 건의했다.

유 군수는 깨끗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성내면과 무장면, 신림면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비롯한 해리면과 고창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축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또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자리에선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고창군은 연초 계획한 국비확보액인 1300억원 달성과 함께 신규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 움직이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안팎으로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원활한 군정운영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선 국비확보가 중요하다"며 "올해 남은 기간은 한국형 뉴딜관련 사업의 지속적 발굴과 함께 올해 목표한 사업들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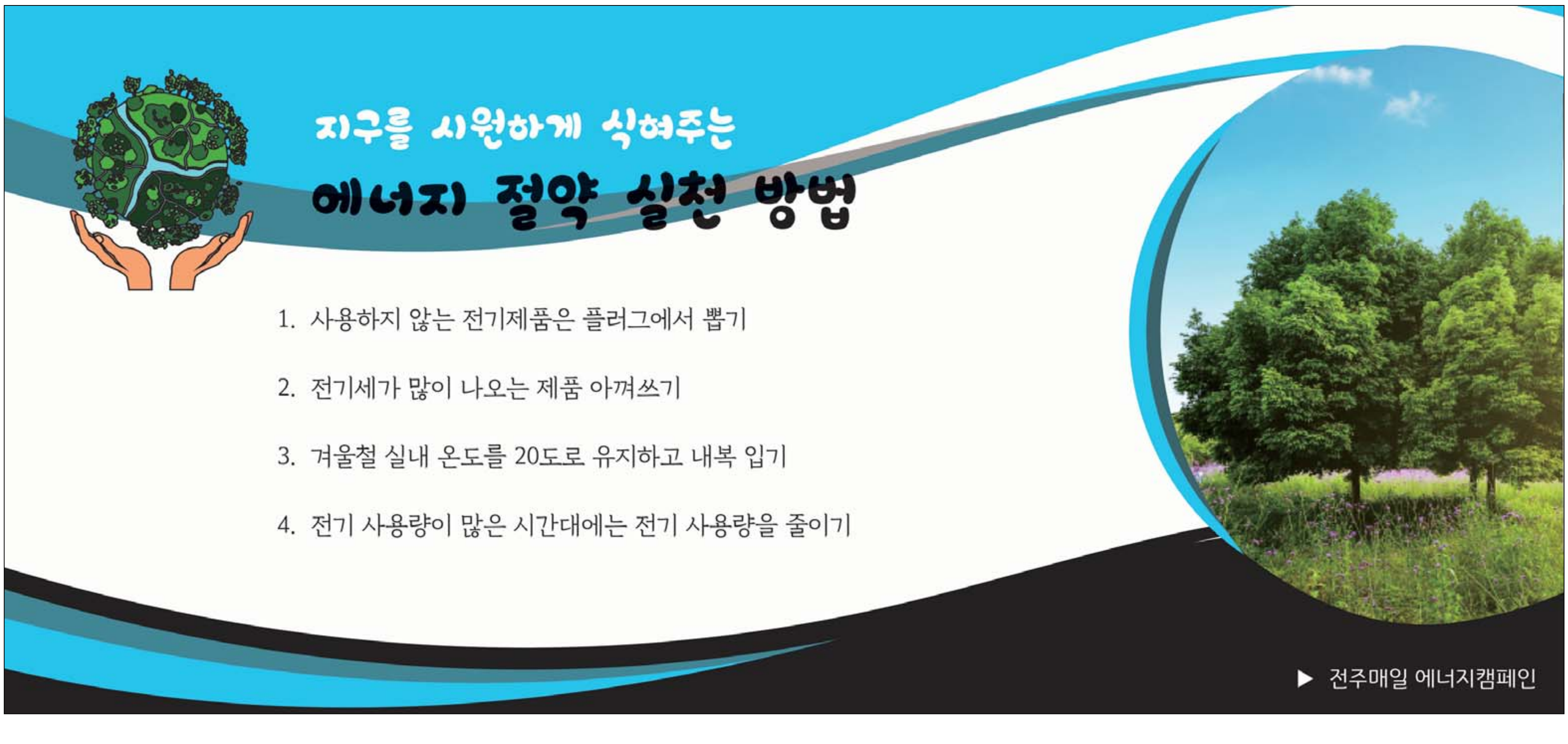
/고창=김영식기자

부안 변산면, 송엽국 심어 아름다운 가로화단 조성

부안군 변산면(면장 박현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해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있다.

공공근로자 9여명은 10월 13일부터 변산면 지서로 일원에 송엽국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가로화단을 조성하였다.

이번 식재작업은 변산면민과 변산면을 지나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멋진 변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다. 지역주민 및 탐방객들에게 향긋한 꽃향기와 아름다운 꽃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선 면장은 "변산면 환경정비에 기여를 한 근로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